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3부 · 적극적 표지 8: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감

『신앙감정론』 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여덟 번째 적극적 표지 (부흥과개혁사 2005, 정성욱 역, 인쇄 487~504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명제를 세웁니다. 참된 은혜의 감정은 예수님의 '어린양 같고 비둘기 같은' 마음, 곧 사랑·온유·평온·용서·자비를 낳고 기릅니다. 그 근거로 산상수훈, 바울과 야고보의 덕목 목록을 들고, 이 미덕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것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구속 사역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속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꼭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영을 받은 사람이므로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담대해야 하지 않나?”라는 반론에 답합니다. 참된 용기와 열정은 사나움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힘이고, '달콤한 불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사랑·자비를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수 성품으로 확인하고, 체험담만 듣고 성품을 무시한 채 회심을 판정하는 목회 관행을 경고합니다.

🪪 표지 카드

표지 8(적극): 참된 은혜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어린양·비둘기 같은 마음, 곧 그분께 있던 사랑·온유·평온·용서·자비를 자연스럽게 낳고 키운다.

이것이 증거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옷깃까지 흐르듯, 같은 영은 같은 성품을 만듭니다. 따라서 이 성품이 지배하지 않는 '체험'은 아무리 강렬해도 그리스도의 영에서 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성품이 자라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있다는 표입니다.

📜 절별 정리

📜 1. 명제와 성경의 증언: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에드워즈는 참된 은혜의 감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온유·평온·용서·자비를 닮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감정(affection)'은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대상에 강하게 끌리거나 등을 돌리는 의지의 움직임입니다. 그는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 마음이야말로 '탁월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예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리자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정신에 있는지 모른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맞는 정신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은 복 받을 사람을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로 묘사하고, 바울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런 덕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정신이 없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고백과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을 품고도 그리스도인이라 자랑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라고 경고합니다. 참된 신자는 이 정신을 그저 '가끔' 갖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정신에 사로잡히고 지배를 받아, 그것이 그의 본질적인 성품이 됩니다.

1. 참 감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게 한다
2. 사랑·온유·평온·용서·자비가 핵심
3. 이 정신 없이는 은사·고백도 무의미
4. 시기·다툼 품은 고백은 자기기만
5. 가끔이 아니라 '지배하는 성품'이어야

> **누가복음 9:55**
> 그리스도의 나라에 맞는 정신이 따로 있음을 보여 줌
>
>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2)

> **잠언 17:27**
> 안정된 성품을 지혜와 연결함

마태복음 5:5, 7, 9

복 받을 사람의 성품 = 온유·긍휼·화평

마태복음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골로새서 3:12~13

택함 받은 자의 '옷'이 긍휼·온유·용서임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고린도전서 13:4~5

이 정신(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헛됨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갈라디아서 5:22~23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 성품들임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3:14~17

시기·다툼은 위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는 반증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 2. 왜 하필 이 미덕들인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

거룩함의 모든 측면이 그리스도인에게 속하지만, 에드워즈는 겸손·온유·사랑·용서·자비를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미덕들은 구속 사역에서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드러내신 속성과 맞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며 보여 주신 모범과 맞습니다. 셋째, 구속으로 맺어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와 맞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겸손한 왕',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 '어린양'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닮은 사람이므로, 지배적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그는 비유를 겹쳐 씁니다. 그리스도 안의 은혜와 신자 안의 은혜는 도장과 인주 자국처럼 대응합니다. 가지는 줄기와 같은 진액으로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체는 머리와 같은 생명을 가집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니 같은 기질을 갖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또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로만 옷 입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도 장식되어 있습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린양이시듯 그 양 떼도 어린양들입니다.

1. 이 미덕들은 구속 사역과 꼭 맞는다
2.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 온유한 어린양
3. 지배적 성품이 그분 같아야 그리스도인
4. 도장과 인주, 가지와 줄기의 대응
5. 전가된 의 +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음

> **마태복음 21:5**
> 예언된 왕의 성품은 겸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1:29

그리스도 스스로 밝힌 성품: 온유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골로새서 3:10

새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3:18

주의 영광을 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해 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8:29

택함의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16

'은혜 위에 은혜': 그분의 충만에서 받은 대응하는 은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고린도전서 6:17

>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요한계시록 14:4

신자는 어린양이 가는 곳마다 따르는 자

>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 3. 비둘기와 기름: 머리와 지체에게 같은 성령

에드워즈는 이 미덕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지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을 나타내려고 비둘기를 상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비둘기는 온유·무해함·평화·사랑의 상징입니다. 머리에게 내려오신 그 성령이 지체에게도 내려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133편의 그림이 이 점을 잘 보여 줍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흐르고, 옷깃의 기름도 머리의 기름과 똑같은 향을 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정과 행동도 그리스도의 기름 향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모두 '비둘기 같은 눈'으로 그리고, 교회를 '나의 비둘기'라 부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갔다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비둘기는 세상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 참 성도의 예표(앞날의 실체를 미리 보여 주는 그림)라고 그는 봅니다.

1. 이 미덕은 성령 자신의 본성이다
2. 비둘기 = 온유·무해·평화·사랑
3. 머리에게 오신 영이 지체에게도 오심
4. 옷깃의 기름도 머리와 같은 향
5. 교회는 성경에서 '나의 비둘기'

갈라디아서 4: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9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서 4:4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20:22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심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일서 2:20, 27

신자도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

요한일서 2: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시편 133:1~2

머리의 기름이 옷깃까지, 연합과 사랑의 영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교회의 '비둘기 같은 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 2:14

교회를 '나의 비둘기'라 부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 4. 온유와 어린아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

에드워즈에 따르면 온유는 성도의 성품에서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경건한 자'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악인'의 반대말로 나옵니다.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어린아이', '소자(작은 자)'라 부르셨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하나씩 짚습니다. 어린아이는 해를 끼치지 않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가 오래가지 않고 뿌리 깊은 악의를 쌓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고 단순하며, 가장할 줄 모릅니다. 고집부리지 않고 순종하며, 자기 지식보다 부모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에서는 장성해야 하지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다움은 성숙한 성도만 이루는 높은 경지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니, 들어가는 문턱 자체입니다.

1. 성경에서 온유한 자 = 경건한 자
2. 제자의 이름은 '어린아이', '작은 자'
3. 악의를 쌓지 않고, 가장하지 않음
4. 자기 지식보다 가르침에 순종
5. 어린아이다움은 천국 입구의 조건

시편 37:10~11

악인과 대비되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함

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147:6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을 엎으심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마태복음 19:14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8:6, 10

제자들을 '이 소자'라 부르심

마태복음 18: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고린도전서 14:20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마태복음 18:3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마가복음 10:15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함 (번역본 '마 10:15'는 마가복음의 오기)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 5. 반론: "그리스도의 군사는 담대해야 하지 않나?" 참된 용기

예상되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군사로서 원수에게 담대히 맞서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틀림없이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된 용기는 먹이를 쫓는 짐승의 사나움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는 마음의 힘으로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악한 정욕과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나 반대에 굽히지 않고 선한 성향을 따르는 일입니다. 가장 강한 원수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의 최고 모범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원수들이 사자처럼 에워쌀 때 맹렬한 연설이나 욕설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의 양처럼 잠잠하셨고,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며, 남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칼을 휘두른 제자는 책망하시고 다친 사람의 귀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보다 그리스도가 더 어린양 같았던 적은 없습니다. 에드워즈는 거짓 담대함도 짚습니다. 사납고 날카롭게 구는 것은 약함의 표시입니다. 교만은 유명해지고 튀고 싶어서 '육적이다'라고 낙인찍은 사람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대적의 비난을 자청하기는 쉽습니다. 더 나은 시험은 자기 무리 안에서 기꺼이 가장 낮은 자로 여김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잘못했을 때는 대적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1. 담대함은 옳다, 다만 오해가 많다
2. 용기 = 내 정욕을 다스리는 힘
3. 최고 모범: 십자가에서 잠잠하신 어린양
4. 사나움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표시
5. 교만은 튀려고 싸우게 만든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사야 53:7

(암시) 도살장의 양처럼 잠잠하신 그리스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23:34

(암시) 원수를 위한 용서의 기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누가복음 22:50~51

(암시) 칼을 막고 상처를 고치심

50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51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3:1~3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표

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 6. 그리스도인의 열정: 달콤한 불꽃

담대함처럼 열정도 오해받습니다.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불꽃은 맞지만 '달콤한 불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불꽃의 실체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고, 열정은 그 사랑이 선을 향해 강하게 나아가는 뜨거움입니다. 선을 사랑하므로 선을 가로막는 악에 맞서는 것도 열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반대는 사물(죄·악)에 대한 것이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신랄하게 구는 것은 열정의 일부가 아니라 열정의 정반대입니다. 참된 열정이 뜨거워질수록 신랄함에서 멀어지고 선에 대한 사랑으로 차오릅니다. 또 그 반감은 먼저 자기 안의 죄를 향하고, 그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합니다. 자기 안의 죄가 가장 잘 보이고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열정은 어린아이·어린양·비둘기의 정신과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그 정신을 키웁니다.

1. 열정 = 선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
2. 반대는 죄를 향하지 사람을 향하지 않음
3. 사람에게 신랄함은 열정의 정반대
4. 먼저 내 죄, 그다음 남의 죄
5. 참 열정은 온유와 함께 자란다

> **고린도전서 13:4~5**
> (앞 절의 연결) 열정의 실체인 사랑은 성내지 않음
>
>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 **야고보서 3:14~17**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잠언 16:32

뜨거움과 자기 다스림이 함께 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진정 불꽃이지만, 그것은 달콤한 불꽃이다."

"그 반대는 사물에 대한 것이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

📜 7.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용서, 사랑, 자비

에드워즈는 이 정신이 용서·사랑·자비로 나타나며, 성경은 이 셋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필수'라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 **용서**는 상처를 덮고 용서하는 성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양쪽 방향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정신이 있으면 내가 용서받은 상태라는 표지입니다. 없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증거입니다. 주기도문과 일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이를 보여 줍니다.
- **사랑**은 신약이 참 성도를 가리는 표지로 가장 자주, 가장 분명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내 계명', '새 계명'이라 부르셨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시험할 표지를 누구보다 분명히 제시했는데, 사랑과 그 실천 외에는 거의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 **자비**는 가난하고 곤핍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는 성향입니다. 구약은 의인을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는 자'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최후 심판은 긍휼을 실천했느냐에 따라 내려집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의인'과 '자비한 자'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1. 용서·사랑·자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2.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는지의 표지
3. 사랑은 신약이 가장 자주 든 표지
4. 요한은 거의 사랑만으로 시험하게 함
5. 최후 심판의 기준에 긍휼이 있다

> **마태복음 6:14~15**
> 용서하면 용서받고, 안 하면 못 받음 (양방향 증거)
>
>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 **마태복음 18:35**
> 일만 달란트 비유의 결론: 중심으로 용서하라 (마가복음 11:25~26도 같은 가르침, 번역본 '마 11:25~26'는 오기)
>
>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 **요한복음 13:34~35**
> 새 계명,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제자를 알아봄
>
>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 사랑으로 생명에 들어간 줄 앎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4:20

형제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17

궁핍한 형제에게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야고보서 2:13~16

긍휼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함

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레미야 22:16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앎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8. 결론과 목회적 경고: 원칙을 사람에 맞추지 말라

에드워즈는 성경의 증거를 모아 결론짓습니다. 이 어린양·비둘기 같은 정신은 구원하는 은혜의 본질이며, 참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소망·슬픔·기쁨·확신·열정 모두에 이 성향이 배어 있습니다. 그는 오해를 미리 막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 반대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어긋난 행동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주장은 참된 신앙의 모든 것이 이 방향으로 기운다는 것, 그리고 이 정신이 지배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목사와 신앙고백자들(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정반대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그럴듯한 깨달음 체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회심했다고 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알아보라고 주신 기준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일시적 인상이나 특정한 단계를 밟은 체험에 신앙을 묶고 성품을 무시하면 성경과 다른 기독교를 만들게 됩니다. 까다롭고 무정하며 인색하고 교만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보다 터무니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심은 그 사람의 가장 잘 알려진 악을 눈에 띄게 바꿉니다. 이사야는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사는 그림으로 은혜가 사나운 본성을 바꾸는 모습을 예언했고, 초대교회 회심자들은 악독과 미움에서 실제로 돌이켰습니다.

1. 이 정신은 모든 참 감정에 배어 있다
2. 완전함이 아니라 '지배적 방향'이 기준
3. 체험담만으로 회심을 판정하지 말라
4. 기질은 고려하되 핑계가 될 순 없다
5. 회심은 가장 알려진 악을 바꾼다

> **요한복음 13:35**
> 그리스도가 주신 제자 판별 기준
>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 **이사야 11:6~9**
> 이리와 어린양: 은혜가 사나운 본성을 바꿈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65:25

같은 변화의 약속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디도서 3:3~5

악독·투기·미움에서 중생으로 바뀐 실례

[3]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골로새서 3:7~8

분노·악의·비방을 벗어 버리라

[7]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원칙을 사람에 끼워 맞추어서는 안 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대상에 강하게 끌리거나 등을 돌리는 의지의 움직임입니다.

심령·기질: 한 사람의 행동을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마음의 바탕과 성향입니다.

성향(inclination): 마음이 늘 어느 쪽으로 기우는 방향입니다.

온유: 약해서가 아니라, 상처와 도발 앞에서도 분노를 다스리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힘입니다.

어린양·비둘기 같은 정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경의 상징으로, 무해함·평화·사랑·순전함을 뜻합니다.

전가된 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신자가 이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제 성품으로도 옷 입는다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성령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부어진 같은 성령이 지체에게도 부어집니다.

예표: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이 신약의 실체를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예: 다윗이 사자 입에서 어린양을 구함).

신앙고백자: 교회에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참 신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심: 은혜로 마음의 본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근본적 변화입니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참된 은혜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어린양·비둘기 같은 마음, 곧 사랑·온유·평온·용서·자비를 낳습니다.
- 그리스도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받았으므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참된 용기와 열정은 사나움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 용서·사랑·자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이며, 성경이 가장 자주 드는 참 신자의 표지입니다.
- 체험담보다 성품을 보십시오. 완전하지 않아도, 이 정신이 나를 지배하며 자라 가는 것이 참된 은혜의 증거입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19편 · 사자가 어린양이 된다 · 표지 8 그리스도의 성품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